

‘작심 발언’ 후 입장 밝힌 안세영

“키 권 협회, 외면 말라”

〈배드민턴〉

‘작심 발언’ 후 말을 아끼던 2024 파리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안세영(22·삼성생명)이 공식 입장을 밝혔다.

안세영은 지난 16일 자신의 소셜 네트워크서비스(SNS)에 장문의 글을 올렸다.

이날 대한배드민턴협회가 안세영과 관련된 자체 진상조사위원회를 여는 것에 대한 입장으로 풀이된다.

안세영은 먼저 올림픽 금메달을 수확하기까지 이끌어준 가족과 지도자들, 동료 선수들에게 대한 감사 인사를 전한 뒤 자신의 발언으로 피해를 입은 선수들에게 사과의 마음을 전했다.

그리고 배드민턴협회에 관한 발언을 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안세영은 “궁극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불합리하지만 관습적으로 해오던 것들을 조금 더 유연하게 바뀌어 나갔으면 하는 바람에 관한 것”이라며 “특히 부상에 있어서는 모든 선수에게 정말 괴롭고 힘든 일이지요. 저 또한 부상으로부터 잘 회복할 수 있는 여건과 지원을 바랐다”고 적었다.

이어 “각 선수가 처한 상황과 구체적인 부상 정도가 모두 다르기에 그에 맞는 유연하고 효율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했지만 현실에 맞닿은 상황은 전혀 그렇지 못해 크게 실망했고 안타까웠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협회와 시시비비를 가리는 공방전이 아닌 제가 겪은 일에 대한 진솔한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있기를 내심 기대하고 있고, 조만간 그런 자리를 가지기를 바라고 있다”며 “시스템, 소통, 케어 부분에 대한 서로의 생각 차이를 조금씩 줄이고 모든 사람이 이해



2024 파리 올림픽 배드민턴 여자 단식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안세영 선수가 지난 16일 공식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안세영 선수가 지난 7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귀국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모습이다.

“상식선에서 운영되길 바라는 것 뿐 선수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길”

할 수 있는 상식선에서 운영되어 주시기를 바라는 것뿐”이라고 밝혔다.

대한체육회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안세영의 발언을 두고 진위 파악에 나선 것에 대해선 환영의 뜻을 나타내면서 “협회가 선수와 원활하게 소통이 되고 있는지 선수들의 목소리에도 꼭 귀를 기울여 주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협회의 변화를 촉구하기도 했다. “협회 관계자들이 변화의 기회를 주고 계신 만큼 더 이상 외면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행동해주셨으면 한다. 합리적인 시스템 아래에서 선수가 운동에만 전념하며 좋은 경기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지속

적인 관심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안세영은 지난 5일 파리올림픽 배드민턴 여자 단식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다.

그러나 우승의 기쁨을 만끽하기도 전인 경기 직후 “내 부상은 생각보다 심각했고, 너무 안일하게 생각한 대표팀에 많이 실망했다”며 “이 순간을 끝으로 대표팀하고 계속 가기는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는 폭탄 발언을 꺼냈다.

안세영과 협회의 논란은 일파파파 커졌고, 협회는 이날 변희재 2명, 교수 1명, 협회 인권위원장, 감사 등으로 구성된 진상조사위를 열었다. 이 자리에 안세영은 참석하지 않았다. /뉴시스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김하성이 지난 16일(현지시각) 미 콜로라도주 덴버의 쿠어스 필드에서 열린 2024 메이저리그 콜로라도 로키스와 경기 2회 초 2점 홈런(시즌 11호)을 친 후 홈에 들어오며 세리머니하고 있다.

‘두 달 만에 손맛’... 김하성, MLB 통산 47홈런

추신수·최지민 이어 한국인 선수 단독 3위

김하성(29·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이 두 달 만에 손 맛을 보며 메이저리그(MLB) 한국인 타자 통산 홈런 단독 3위로 올라섰다.

김하성은 지난 17일(한국시각) 미국 콜로라도주 덴버의 쿠어스 필드에서 벌어진 2024 MLB 콜로라도 로키스와 경기에서 8번 타자 유격수로 선발 출전해 2회 홈런을 때려냈다.

샌디에이고가 0-4로 끌려가던 2회초 1사 1루 상황에 타석에 들어선 김하성은 3구째 시속 152.6km 몸쪽 심커를 잡아당겼다.

타구는 시속 164.2km로 날아가 왼쪽 담장을 넘어갔다. 비거리는 123.4m였다.

김하성은 6월 23일 밀워키 브루어스 전 이후 55일 만에 홈런을 날렸다. 시즌 11호 홈런이다.

MLB 개인 통산 47번째 홈런을 친 김하성은 강정호를 제치고 한국인 메이저리거 통산 홈런 단독 3위 자리를 꿰찼다.

1위는 218홈런의 추신수(현 SSG 랜더스)다. 2위는 최지민(67홈런)이고, 4위는 강정호(46홈런)다.

김하성은 이후 타석에서는 안타를 치지 못했다. 이날 김하성은 3타수 1안타(1홈런) 2타점 1볼넷 1득점으로 경기를 마무리했다.

김하성의 시즌 성적은 타율 0.220(397타수 91안타) 11홈런 47타점 60득점에 OPS(출루율+장타율) 0.639이 됐다.

김하성의 홈런에도 샌디에이고는 3-7로 졌다. 선발 투수 맷 월드론이 5%이닝 9피안타(2홈런) 7실점으로 흔들렸고, 병살타가 4개나 나오면서 패배의 쓴 잔을 들었다.

3연승을 마감한 샌디에이고는 69승 54패를 기록했다. /뉴시스

전북자치도민체전 홈페이지 오픈

내달 6~8일 순창 공설운동장서... 자치도 출범 후 첫 개최 대회 소개부터 일정·성화 행사 등 주요 행사 정보 담겨



순창군이 제6회 전북특별자치도민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공식 홈페이지를 오픈하고 본격적인 홍보에 나섰다.

이번 대회는 전라북도가 전북특별자치도로 새롭게 출범한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행사로, 오는 9월 6일부터 8일까지 순창군 공설운동장에서 ‘행복 담은 순창에서 함께 여는 특별자치도’는 슬로건 아래 진행될 예정이다.

새롭게 개통된 홈페이지(https://2024.scsports.sunchang.go.kr/)는 대회의 모든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창구로, 대회 소개부터 개·폐회식 일정, 성화 행사 등 주요 행사 정보를 소개한다.

특히, 방문객들의 편의를 위해 주차, 교통, 숙박, 맛집, 관광지 정보도 꼼꼼히 담았다. 이는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들뿐만 아니라 순창을 찾는 모든 이들에게 유용한 가이드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굳은 남은 기간 동안 철저한 준비를 통해 도민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체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홈페이지를 통해 대회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도민들의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이번 전북특별자치도민체육대회는 전라북도가 새롭게 전북특별자치도로 출범한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의미 있는 행사인 만큼, 모든 역량을 동원해 준비하고 있다”면서, “방문객들에게는 잊지 못할 추억을, 선수들에게는 최고의 경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영원 기자

‘권창훈 결승골’... 전북, 포항에 2-1 극적 승

프로축구K리그1

2연패 탈출... 포항은 3연패

프로축구 K리그1 전북현대가 권창훈의 극적 결승골에 힘입어 포항스틸러스를 눌렀다.

전북은 지난 17일 오후 7시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포항과의 ‘하나은행 K리그1 2024’ 2라운드 홈 경기에서 2-1로 승리를 거뒀다.

이로써 지난 2경기에서 모두 패배하며 부진했던 전북은 6승8무13패(승점 26)를 기록했다. 그러나 대전하나시너지전도 이날 인천유나이티드에 승리를 거두면서 최하위 탈출에는 실패했다.

이날 패배한 포항은 3연패 늪에 빠지면서 12승8무7패(승점 44)로 리그 4위에 머물렀다. 치열한 공방전 끝에 전북이 먼저 리

드를 잡았다.

전반 43분 전북 김진규가 빠른 슈팅이 포항 골키퍼 황인재의 선방에 막혔다.

이후 흐른 공을 안드리고가 침착하게 마무리하면서 승부의 균형을 깼다. 포항은 후반 시작과 동시에 이태석, 윤민호를 빼고 정재희, 백성동을 투입하며 득점을 노렸다.

계속해서 전북 골망을 두드리던 포항은 후반 26분 동점골을 터트리는 데 성공했다.

페널티박스 근처에서 프리킥 기회를 잡았고, 키커로 나선 완델손이 정확한 슈팅을 때렸다. 크로스바 하단을 때린 뒤 골라인을 넘는 거로 판정돼 득점으로 인정됐다.

전북은 후반 30분 안드리고, 티아고를 빼고 권창훈, 전진우를 교체하면서 결승골을 노렸다. 후반 44분에는 김하준, 송민규까지 그라운드를 밟았다.

포항도 허용준을 교체시키면서 맞불을 놓았다.

결승골을 노리는 두 팀의 분위기는 더욱 치열해졌다. 결국 후반 48분 신광훈이 레드카드를 받아 퇴장당하는 변수가 나왔다.

수적 우위를 점한 전북은 경기 종료 직전에 극적인 승점 3을 추가했다.

후반 54분 권창훈의 크로스가 운 좋게 포항 골대로 향했고, 골키퍼 키를 넘기면서 득점이 됐다.

권창훈은 데뷔전에서 데뷔골을, 결승골로 확장한 뒤 포효했다.

이날 오후 7시30분 대전월드컵경기장에서는 홈팀 대전이 인천에 2-1 승리를 거뒀다.

승리한 대전은 6승9무12패(승점 27)를 기록하며 리그 10위가 됐다.

패배한 인천은 6승10무11패(승점 28)로 리그 9위에 머물렀다. /뉴시스

2024. 8. 22(목) 7:30pm

고보연

Vn. 임영주 Vc. 박재은 P. 이영신

2024. 8. 23(금) 7:30pm

르네 마그리트

Vn. 김민아 Vn. 송유호 Vc. 오주원 P. 송현정 P. 이상희 P. 이도경

2024. 9. 26(목) 7:30pm

김기창 & 박래현

G. 김재은 P. 정승호 P. 김재은 P. 김재은

2024. 9. 27(금) 7:30pm

천경자

P. 이효정 P. 이영신 P. 송현정 P. 이상희 P. 이도경

2024. 10. 24(목) 7:30pm

도드 루이스

Pf. 장소현 Ten. 나영호 Vn. 임지수 Vc. 양신영 P. 이윤정

2024. 10. 25(금) 7:30pm

프리다 칼로

Vn. 박현호 Vc. 강하연 P. 이우용

2024. 11. 29(금) 7:30pm

박안나

가수 지혜 Gt. 이성욱 Dr. 정영준 Cb. 정요준

시즌 II

명화따라클래식산책

2024. 8. 22 ~ 11. 29

문화공간 이름 ART SPACE

티켓 | 전석 22,000원

예약 | "명화따라 클래식 산책 II" 검색

문의 | 카카오톡 채널 "문화공간이름" ☎ 063. 223. 5323

주최·주관 | 문화공간이름

후원 | JT 전북특별자치도문화재단 전주매일신문 전주발전회 오성만문화재단 나래코리아

본 공연은 (재)전북특별자치도문화재단 2024년 소공연장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입니다.